

# 아프리카 테크 스타트업 시장 동향

정수미\*

## 1. 서론

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은 선진국 뿐 아니라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도 경제성장과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위한 주요 해결책으로 작용하고 있다. 튀니지아, 세네갈 등 아프리카 주요국가들은 경제성장 및 사회문제에 대한 혁신 솔루션 창출이 가능한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테크허브,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코워킹 스페이스, 벤처투자자 등 생태계 구축을 위한 환경을 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현재 아프리카의 스타트업 환경 및 테크 스타트업 시장 동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아프리카 테크 스타트업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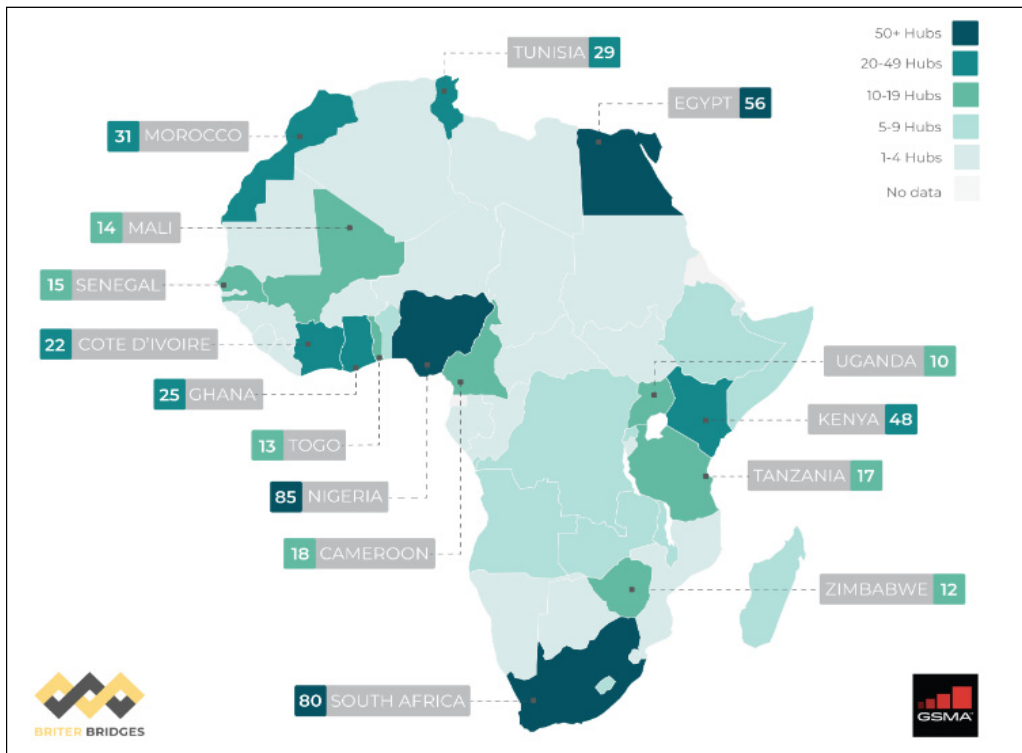
### 1) 아프리카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

최근 아프리카는 심각한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 경제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GSMA(2019)에 따르면 아프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실 연구원, 043)531-4217, smjeong@kisdi.re.kr

리카에서는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코워킹 스페이스 및 기타 기술 기반 시설을 제공하는 테크허브가 2017년 314개에서 2018년 442개, 2019년 618개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아프리카의 나라별 집계는 나이지리아(85개), 남아공(80개), 이집트(56개), 케냐(48개), 모로코(31개), 튀니지(29개), 가나(25개), 코트디부아르(22개), 카메룬(18개), 탄자니아(17개) 순이다(그림 1).

[그림 1] 아프리카의 테크허브



자료: GSMA(2019. 7. 10)

총 618개 테크허브의 24%는 코워킹 스페이스, 52%는 인큐베이터나 액셀러레이터, 6%는 메이커 스페이스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별 테크허브의 숫자로 알 수 있듯이, 나이지리아, 남아공, 이집트 그리고 케냐에서의 스타트업 지원 생태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도시별로는 라고스, 케이프 타운, 요하네스버그, 나이로비 등에 가장 많은 허브가 위치해 있으며, 이들 도시는 테크 스타트업 양성의 핵심지가 되어가고 있다.<sup>1)</sup>

특히 개별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테크허브들은 타 지역으로의 확장 및 전문화를 시작하여 아프리카 대륙의 테크 생태계는 성숙화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2월에는 나이지리아 초기 혁신 허브 중 하나였던 Co-Creation Hub(CcHuB)가 르완다 키갈리에 디자인 허브를 런칭하였고, 2019년 9월에는 케냐의 테크 허브 선두주자 중 하나였던 iHub도 인수한 바 있다.<sup>2)</sup>

아프리카는 지역 및 각국 정부 차원에서도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를 시작하였다. 아프리카 연합(Africa Union)은 2018년 다양한 스타트업 및 혁신 허브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 아프리카 대륙 차원에서의 디지털 정책을 수립/발표했다.

튀니지아 및 세네갈은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여러 방법(혁신 및 창업 촉진, 데이터 수집 및 공유 촉진, 세제 혜택, 스타트업 파이낸싱 등)을 담은 ‘Startup Act’를 통과시켰다.<sup>3)</sup> 튀니지아 정부는 스타트업 설립 8년간은 법인세를 면제해 주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스타트업 창립을 위해 재직자에게는 1년간의 스타트업 휴가가 가능하며, 스타트업 창립자는(한 회사당 3인까지) 1년간 스타트업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sup>4)</sup>

튀니지아와 세네갈의 모범 사례를 뒤따라, 가나와 르완다 역시 i4Policy의 도움을 받아 스타트업 지원법을 구상 중이다. 말리 정부 역시 2019년 4월 초기 단계 벤처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청사진을 수립하였으며, 스타트업의 스케일링(scaling)을 위한 ‘Startup Gurantee Fund’도 조성할 예정이다.<sup>5)</sup>

케냐 정부는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개인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고

1) GSMA(2019. 7. 10)

2) Quartz Africa(2019. 12. 31)

3) Quartz Africa(2018. 12. 26)

4) African Heroes (2019. 12. 30)

5) The Kenyan WallStreet (2019. 12. 2)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업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회사법을 개정하였다. 특히 ‘Enterprise Kenya Initiative’에 따라 케냐의 정보통신부는 혁신 및 창업 정책 육성을 위해 나이로비 대학 등 주요 대학을 지원하고 창업 액셀러레이터와 인큐베이팅 센터를 설립하였으며 ICT 산업의 육성을 위해 나이로비 근교에 콘자(Konza) 테크노시티를 건설하고 있다.<sup>6)</sup> 나이지리아 역시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에게는 조세 감면 혜택을 주는 ‘Finance Act’의 도입을 앞두고 있으며, 2020년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268백만의 예산을 편성하였다.<sup>7)</sup>

이 외에도 아프리카 26개국이 멤버인 Smart Africa 이사회는 아프리카 최초로 스타트업 지원법을 도입한 튀니지아 정부에게 ‘Startup Act’ 사례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아프리카 대륙이 스타트업 육성 정책 수립에 크게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아프리카 테크 스타트업 펀딩

WeeTracker에 의하면 2019년 아프리카의 테크 스타트업들은 총 \$13억에 해당하는 투자금을, Disrupt Africa에 의하면 총 \$496백만, Partech Africa에 의하면 총 \$20억의 펀딩을 받았다.<sup>8)</sup> 각 기관별 집계가 다소 상이한 이유는 스타트업에 대한 정의를 달리 하기 때문이나 어느 기준을 적용해도 아프리카 스타트업들이 유치하는 펀딩의 규모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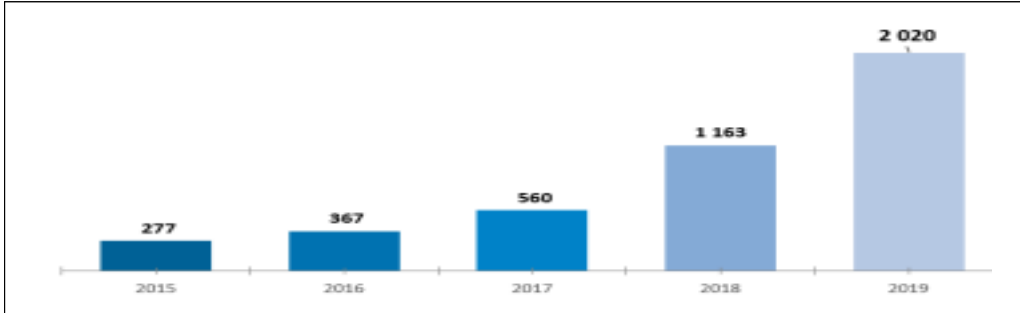
6) 청년정책(2017. 10. 19)

7) Emmanuel Paul(2020. 2. 26)

8) TechCrunch(2020. 3. 5)

[그림 2] 2015-2019 아프리카 테크 스타트업의 펀딩 유치 규모

(단위: US\$ 백만)



자료: Partech(2020)

2017년, 2018년에 이어 2019년 아프리카에서 테크 스타트업들의 투자유치는 현재 나이지리아, 케냐, 이집트, 남아공이 주도하고 있다[그림 3]. 이 네 국가는 아프리카 중에서도 연결성(connectivity) 및 로지스틱스 네트워크 등 물리적 인프라와 테크허브 및 스타트업 지원 법 등 시설 및 제도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다. 이들은 아프리카 인구수 상위 국가들로(나이지리아 1위, 이집트 3위, 남아공 5위, 케냐 7위) 일정 부분의 시장이 확보되고, 디지털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젊은 인구층이 두터운 편이기도 하다. 또한, 이 국가들은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남아공 Nasper, Promasidor Holdings, Cell C; 나이지리아 Jumia, Interswitch; 케냐 M-Pesa, M-Kop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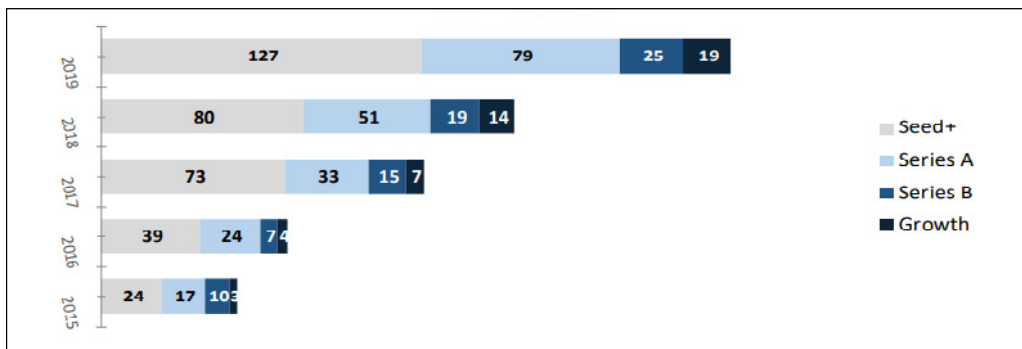
[그림 3] 2019 아프리카의 Top 5 VC 투자 유치국

	Partech Africa*	WeeTracker	Disrupt Africa*
1	🇳🇮 Nigeria \$747M	🇳🇮 Nigeria \$663M	🇰🇪 Kenya \$149M
2	🇰🇪 Kenya \$564M	🇰🇪 Kenya \$428M	🇳🇮 Nigeria \$122M
3	🇪🇬 Egypt \$211M	🇪🇬 Egypt \$79M	🇿🇦 South Africa \$73M
4	🇿🇦 South Africa \$205M	🇿🇦 South Africa \$67M	🇪🇬 Egypt \$85M
5	🇷🇼 Rwanda \$126M	🇬🇦 Ghana \$45M	🇬🇦 Ghana \$26M

자료: TechCrunch(2020. 3. 5)

Partech의 2019년 총 250건의 펀딩 집계 중,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로 총 206건의 투자가 시드(seed)와 시리즈A 단계에 집중되었다(총 \$620백만)[그림 4]. 초기 단계에 있는 아프리카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투자를 결정하는 對아프리카 투자 자신감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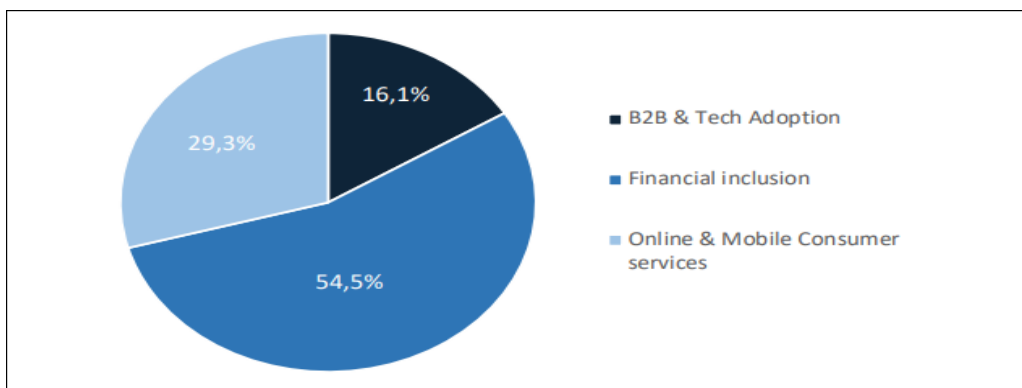
[그림 4] 아프리카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 펀딩 건수 (2015-2019)



자료: Partech(2020)

펀딩 분야별로 가장 많은 펀딩을 받은 분야는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으로, 총 펀딩의 54.5%를 차지했다. 온라인 및 모바일 고객 서비스(Online & Mobile Consumer Service)는 29.3%, B2B 및 기술도입 분야(B2B & Tech Adoption)는 16.1%를 차지했다[그림 5].

[그림 5] 2019 對아프리카 테크 스타트업 투자 - 분야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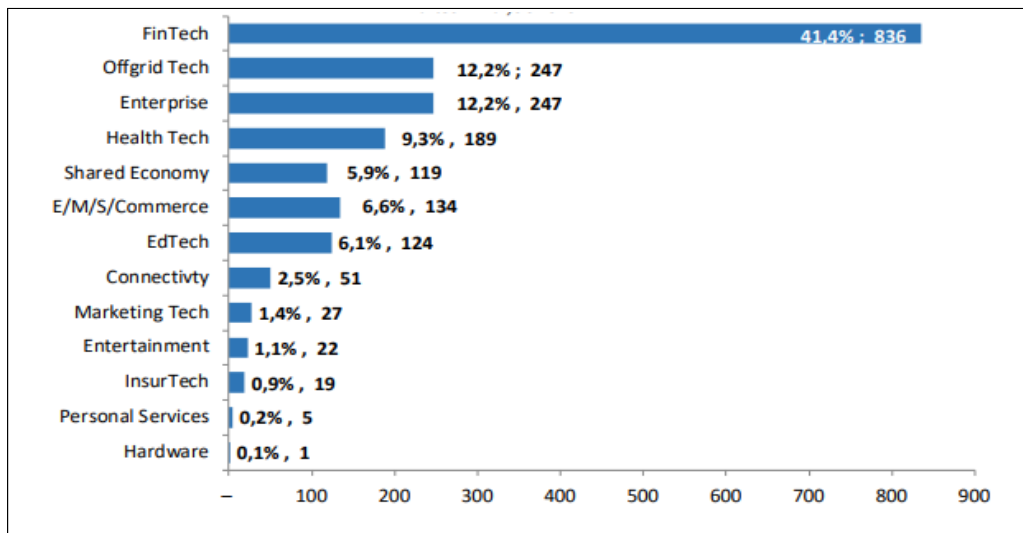
자료: Partech(2020)

금융포용 분야의 스타트업은 핀테크(Fintech), 오프그리드테크(Off-grid tech)<sup>9)</sup>, 인슈어테크(Insurtech) 등이 증가 되고 있고, B2B 및 기술도입 분야의 스타트업은 대부분 소프트웨어, 연결성(Connectivity) & 하드웨어, 마테크(Martech) 등을 다루는 스타트업이다. 온라인 및 모바일 고객 서비스 분야는 전자상거래, 공유경제 & 개인서비스, 에드테크(edtech), 헬스테크(healthtech) 등의 스타트업들이 증가 되고 있다.

버티컬(Vertical) 서비스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핀테크 (41.4%), 오프그리드 테크 (12.2%), 기업 서비스 (12.2%), 헬스테크 (9.3%), 공유경제 (5.9%), E/M/S Commerce (6.6%) 등이 가장 많은 펀딩을 받았다[그림 6].

[그림 6] 2019 對아프리카 테크 스타트업 투자 - 버티컬(vertical) 영역별

(단위: US\$ 백만)



자료: Partech(2020)

9) 오프그리드(Off-grid)란 외부에서 전기가 가스 등의 에너지를 제공받지 않고 적정 에너지를 생산해 사용하는 것으로 일반 가정에 설치하는 태양광 패널 등이 대표적이다(Kotra해외시장뉴스(2020.3.9)).

살펴본 바와 같이, 아프리카로 유입되고 있는 벤처캐피털(VC)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투자금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유입되어 왔다. 반면, 최근에는 아프리카 지역의 로컬 벤처펀드도 다수 등장하고 있어 아프리카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대표적인 로컬 벤처펀드로는 나이지리아의 Singularity Investment, 가나의 Golden Palm Investment, Musha Ventures 등이 있다.<sup>10)</sup>

### 3. 결론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프리카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사회적 결핍이 심한 분야(핀테크, 오프그리드 테크 등)에서 사회 문제에 ICT 등 최신 기술을 결합하여 해결하는 방식의 스타트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 ICT 스타트업 시장의 잠재력은 아주 크다. GSMA(2019)는 2025년까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무선 인터넷 가입자 수가 2018년의 2배인 623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앞으로 5년 내 아프리카의 휴대폰과 디지털화가 아주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아프리카 지역의 다양한 영역에서 ICT를 기반으로 한 혁신과 스타트업의 등장이 기대된다.

---

10) Contentfly(2019. 1. 3)



## 참고문헌

- 청년정책 (2017. 10. 19), “세계 산업동향 - 케냐, IT 스타트업 육성 정책”, 청년정책사용 설명서.
- Kotra해외시장뉴스(2020.3.9.). “모잠비크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주목하라”.
- African Heroes (2019. 12. 30), “Senegal is now Africa’s 2nd Country to have a startup act”.
- The Kenyan WallStreet (2019.1 2. 2), “Mali and Ghana to Establish a Startup Act”.
- Contentfly (2019. 1. 3), “The State of Tech Startups in Africa”, 2020.3.20.  
<https://contentfly.co/blog/the-state-of-tech-startups-in-africa-2/>.
- Emmanuel Paul(2020. 2. 26.). “Nigerian government approves \$268 million to support startups/MSMEs”, Techpoint.africa.
- GSMA(2019). “The Mobile Economy 2019.” GSMA.
- GSMA(2019. 7. 10), “618 active tech hubs: The backbone of Africa’s tech ecosystem”.
- Partech(2020). “2019 Africa Tech Venture Capital Report”. Partech.
- Quartz Africa(2019. 12. 31), “The biggest trends in African tech and startups in 2019”.
- Techcrunch (2020. 3. 5), “Did African startups raise \$496M, \$1B or \$2B in 2019?”.